

수익률 고공행진에도 말 못하는 운용사 '리츠의 고민'

자산 60% H에 투자 '삼성 리츠' 연초이후 수익률 19.7% 달하는데 H 불매운동에 성과 적극 홍보 못해 올림픽에 2020년까지 호황 전망

일본의 무역 보복에 따른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일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최근 일본 리츠 펀드는 도쿄 올림픽 등 호재로 해외 부동산 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적극 홍보할 수 없어서다.

1일 펀드평가사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해외부동산 펀드 중 최근 1개월 수익률(8월 30일 기준)이 가장 높은 펀드는 삼성자산운용의 '삼성J-REITs부동산1(REITs-재간접)'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4.51% 수익률을 냈고, 연초 이후 수익률은 19.71%다.

해당 펀드는 일본의 부동산과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

〈해외대체투자펀드 중 수익률 상위 펀드〉

펀드명	운용사	설정액	순자산	1개월	6개월	연초이후
삼성J-REITs부동산1(REITs-재간접)(C)	삼성자산운용	114	142	4.51	14.09	19.71
삼성JapanProperty부동산(REITs-재간접)	삼성자산운용	68	65	4.18	12.15	18.51
미래에셋글로벌리츠부동산자(재간접)C-F	미래에셋자산운용	31	39	4.06	11.74	23.73
한화JapanREITs부동산1(리츠-재간접)(C1)	한화자산운용	72	82	3.63	12.17	17.09
한국투자KINDEX다우존스미국리츠부동산ETF(파생)(합성H)	한국투자신탁운용	50	82	3.27	10.60	24.65
한국WW베트남부동산개발특별자산1	한국투자신탁운용	660	717	2.77	8.64	13.86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9-2	미래에셋자산운용	2,941	3,365	2.71	12.62	12.83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자(리츠-재간접)(A)	한화자산운용	59	57	2.68	6.93	18.44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11	미래에셋자산운용	1,470	1,728	2.68	11.87	12.10

(단위:억원, %)

[자료=펀드평가사]

으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서 발표하는 'TSE 리츠 인덱스'에 포함된 J-REITs를 시가총액 비중이 맞춰 분산투자한다. 자산의 60% 이상을 일본 리츠(J-REITs)에 투자한다.

비슷한 전략으로 운용하는 '삼성재팬프라퍼티(JapanProperty)부동산(REITs-재간접)'이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1개월 4.18%)을 기록했고, 네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 역시 일본 리츠에 투자하는 한화자산운용의 '한화재팬리츠(JapanREITs)부동산1(리츠-재간접)'이다. 한 달 수익률은 3.

63%, 연초 이후 수익률은 17.09%다. 최근 한 달 간 국내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4.81%, 해외주식형펀드는 -3.32%였다. 4~6% 배당까지 주는 리츠 등 대체투자에 투자를 했다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다. 게다가 해당기간 해외 대체투자펀드 전체 수익률이 1.22%인 점을 감안하면 해외대체투자 펀드 중에서도 일본 리츠에 투자하는 게 성공적인 전략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일본 리츠가 목표 수익률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자산운

용사는 상품 홍보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때문에 4%가 넘는 수익률을 내는 가운데서도 최근 한 달 '삼성J-REITs부동산1(REITs-재간접)'으로 유입된 자금은 15억원에 그쳤고, 해외대체투자펀드 유입액 상위는 글로벌리츠, 아시아 리츠 등이 차지했다.

대신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 지점에서는 추천 상품에 일본 리츠를 올려놓고 있다.

현재 증권사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있는 펀드는 '한화JapanREITs부

동산1(리츠-재간접)'이다.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 4개사가 추천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과 별개로 자본시장에서는 일정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길 바라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이 좋고, 앞으로도 좋을만한 상품을 추천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 일본 리츠 상품의 전망은 밝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공실률이 거의 없는 데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과 경기둔화 우려에도 일본 리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면서 "일본은 3대 도시권인 도쿄, 오사카, 나고야 중 올림픽 관련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공실률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도쿄 지역의 부동산이 2020년까지 호황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클라우드컴퓨팅 ETF 뜬다... 수익률 '휘훨'

(상장지수펀드)

美 나스닥 상장 '글로벌X 클라우드' 4개월만에 순자산 5억 달러 넘어서 국내 美투자 주식 4위 기록 등 인기

클라우드 컴퓨팅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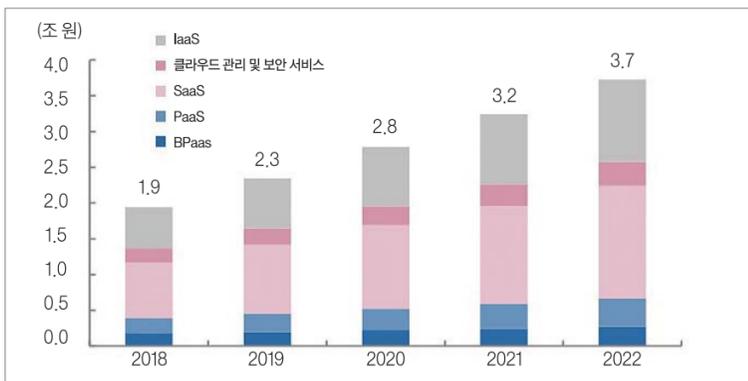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회사인 글로벌X가 지난 4월 12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글로벌X 클라우드 컴퓨팅 ETF(이하 글로벌X 클라우드)'가 약 4개월 만에 순자산 5억달러를 넘어섰다. 또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은 '차이나 클라우드 ETF'를 지난 7월 25일 홍콩거래소에 상장한 후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차이나 클라우드 ETF'는 홍콩거래소 최초로 상장된 클라우드 컴퓨팅 ETF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3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글로벌X 클라우드'는 순자산이 5억 1120만달러, '차이나 클라우드 ETF'는 3630만달러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은 이를 위해 지난해 전 세계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는 운용규모 11조원의 ETF 운용사 글로벌X를 인수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서버를 통해 정보가 저장되고 이를 통해 각종 IT 기기와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글로벌X 클라우드'는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인덱스(Global Cloud Computing Index)를 추종한다. 클라우드 서버·스토리지·데이터베이스·네트워킹·소프트웨어 등 클라우드 컴퓨팅 매출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회사에 주로 투자한다. 또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퍼블릭 클라우드 매출 규모가 큰 회사도 투자대상이며, 부품 생산업체, 데이터센터로 사용되는 건물 리츠(REITs)도 포함된다.

'글로벌X 클라우드'는 국내 투자자

〈전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전망〉



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한 주식 4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이 펀드에 투자한 규모는 약 2억 576만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ETF 시장에서 지난 2011년 7월 최초로 상장돼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 SKYY의 '퍼스트 트러스트 클라우드 컴퓨팅(First Trust Cloud Computing) ETF'의 운용자산은 8월 22일 기준 22억 1000만달러에 달한다. 또 TCLD의 '토르츠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Tortoise Cloud Infrastructure) ETF'가 지난 1월 31일, BKCH의 '어드바이저 셰어 세버투스(Advisor Shares Sabre Tooth) ETF'가 지난 2월 6일 상장되는 등 올 들어 시장 경쟁이 뜨겁다.

지난 8월 22일 기준 각사와 ETF닷컴(ETF.com)이 발표한 지난 3개월 간 수익률을 보면 미래에셋 펀드만이 1.61%의 플러스 수익률을 냈으며, BKC H는 -0.1%, SKYY는 -2.53%, TCLD는 -3.5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근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한 것을 감안할 때 미래에셋 펀드는 선방하고 있는데 지난 4월 설정 이후 5.27%라는 양호

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ETF 시장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확대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IT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향후 5년간 연 평균 16.1%의 성장률을 기록, 2022년 3312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글로벌 X 리서치팀 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매년 14.6%의 성장세를 보여 2022년 323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김훈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연평균 15%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ETF를 매수하는 방법"이라며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가 5개가 있고 SKYY가 대표적인 데, 최근 5년간 S&P 500지수 누적수익률이 60%인 반면 SKYY는 109% 상승하는 등 이들 ETF의 퍼포먼스는 일제히 주가지수를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X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가장 높고, 거래도 타 ETF보다 활발해 시장 관심이 높은 종목"이라고 덧붙였다.

[채윤정 기자 echo@]

美의 中 추가관세에 당분간 '박스권'

주간증시전망

中 맞불작전... 美관세 최대 10%

이달부터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서 경기 충격에 대한 우려가 국내 증시에도 작용할 전망이다.

또 이번주 발표되는 한국 수출입과 주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미국 고용지표 등도 증시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권사들이 1일 주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이번주 코스피 밴드는 NH투자증권 1900~1970, 하나금융투자 1900~1950, 케이프투자증권 1940~2000 등이다.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가 부과하는 가운데 양국의 협상 추이에 따라 당분간 좁은 박스권에서 증시가 등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미국은 이달부터 112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중 일부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예고했던 3000억 달러 규모의 9종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상당수 소비재 품목들이 포함된다.

이어 12월부터는 약 1560억달러의 수입품이 관세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정보·IT기술 제품이 대상이다. 또 10월부터는 현재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보다 5%포인트 인상된 30%의 관세를 물릴 예정이다.

중국도 맞불 작전에 나선다. 중국은 이달부터 미국산 수입품 5078개 품목, 75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최고 10% 관세를 추징한다. 12월부터는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각각 25%, 5%의 관세 추징을 한다고 추가로 고지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국내 주식형펀드 '약세' 금펀드 '약진'

주간펀드동향

여전히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 보복 등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식형펀드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8월23일~29일)간 전주 대비 0.90% 하락한 1933.41포인트로 마감했다. 주 초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한다는 소식에 한일 갈등 심화 우려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지만 주중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되는 모습에 하락폭을 일부 되돌렸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월드인덱스(W

orld Index)는 전주 대비 0.07% 상승한 반면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는 전주 대비 0.57% 하락했다. 해당 기간 국내주식형펀드는 1.01% 하락했다. 액티브펀드를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서 전체 순자산은 6370억원 줄었다.

해외주식형펀드는 0.80% 하락했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 주식형펀드는 '골드브릿지스마트목표 전환형증권투자신탁S-7[주식혼합]종류A'(0.93%)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에서는 금값 상승으로 인해 소재섹터인 '신한BNPP골드증권투자신탁1[주식]종류A' 펀드가 5.16%의 뛰어난 수익률을 기록했다.

[손엄지 기자]